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ARCHIMEDES SIGNAL

가제 : 아르키메데스 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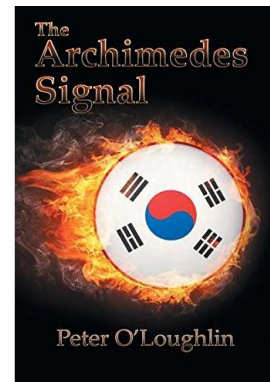
저자 : Peter O'Loughlin

출판사: Black Rose Writing

발행일: 2014년 10월 1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을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토대로 재해석한 역사 소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쓴 총에 맞아 암살된 10·26 사건의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 공식적인 수사 결과와 같이 권력에 눈이 먼 김재규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리자 충동적으로 벌인 일일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추측처럼, 미국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기던 박 대통령을 없애기 위해 뒤에서 은밀히 계획한 일일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한국 오산 비행장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작가는 지금까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이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보고, 그 과정을 낱알이 밝힌 이야기를 완성했다. 역사 소설이지만 작가 자신은 이 책에 대해 한국 근무 당시 북한 첩보단을 쫓던 한국 비밀요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실과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검사, 판사로 일하면서 한국과 미국 정보요원들에게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사실 보도문’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한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박 대통령의 암살계획은 이미 7년여 전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줄기이다. 작가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1971년, 오산 비행장에서는 미 공군이 보유한 M16 소총 열다섯정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 미 보안사 참모들은 조사 결과 일부 미군들이 한국에서 남몰래 활동 중이던 북한 첩보단에게 포섭을 당해 총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군 참모 중 한 사람이던 커버데일은 북한이 이 훔친 미군의 총으로 한국 대통령을 해친다면, 미국이 평소 씩 마음에 안 들어 하던 독재자 박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커버데일은 변호사이자 해외주간지 기자인 바바라 스톤을 불러,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 한국에 잠입한 북한 첩보단의 은밀한 활동과 포섭된 자들, 미군부대에서 사라진 M16 소총

바바라 스톤의 보도를 통해, 총을 훔쳐 군사재판에 회부된 미군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내에 잠입한 북한 첩보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 미군들은 물론 이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도 북한 첩보단에게 남모를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데 1979년 박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이 사건을 취재하려 다시 한국을 찾은 바바라 스톤은 7년 전 사라진 미군의 M16 소총이 커버데일의 우려처럼 암살에 사용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경로로 총이 김재규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한다. 김재규 자신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박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10월 유신부터 주변 부하들도 눈치챌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결정적으로 10·26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김재규가 CIA 한국지부장이던 로버트 브루스터를 면담한 일까지 드러나면서 미국이 박 대통령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군사재판에서 김재규는 미국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박 대통령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그런 상황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암살 이유에 포함된다고 발언하여 세간에서 제기된 미국의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작가는 현재까지도 한국 내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북한 첩보단이 1971년 미군 소총의 도난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오산과 화성시 송탄읍 일대에서 일으킨 사건들과 암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증언을 토대로 사라진 소총과 그 배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래가 어떤 결과와 오해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준다.

실존 인물들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사실성을 더하고,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기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된다.

### <저자 소개>

피터 오라플린(Peter O'Loughlin)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검사와 판사직을 역임했다. 랭허스트 칼리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 공군으로 베트남 등 해외 3개국에 군 법무관으로 배치되었고, 이 시기에 1971년 6월부터 1972년 7월까지 한국의 오산 비행장에서 근무했다.

제목 : THE SPACE BETWEEN THE STARS

가제 : 별과 별 사이에

저자 : Anne Corlett

출판사: Pan Macmillan

발행일: 2017년 6월

분량 : 100,000-110,000 words

장르 : 소설



**우주 전체를 휩쓴 치명적인 바이러스, 사랑과 상실, 다시는 없을지 모를 기회를 찾으려 나선 여행**

인류가 정착해서 사는 우주의 행성 전체로 퍼져나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99.999 퍼센트의 치사율로 생명을 앗아갔다. 중심 행성인 아글레아와 제이미가 살고 있는 솔리테어 행성 사이에 오가던 통신도 벌써 일주일 전부터 끊겨버렸다. 솔리테어에는 첫 환자가 등장하기도 전에 통신부터 두절되더니, 결국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다. 감염에 주의하라며 거리마다 온종일 울려 퍼지던 경고 메시지도 차츰 줄어들었다. 일단 유입된 바이러스가 삼시간에 퍼진 바람에 경고조차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이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땀으로 침대 시트가 흠뻑 젖어버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고열에 시달린 지도 벌써 3일째였다. 잠깐 정신이 들 때마다 입안 가득 터져 나온 피와 온 몸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머릿속은 회전목마가 돌고 있는 것처럼 어질어질했다. 그런데 이 어지럼증이 아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자, 제이미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존할 확률이 100만분의 1도 안 된다는데,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지구와 솔리테어, 아글레아까지 우주 곳곳에 100억이 넘는 인류가 흩어져서 사는데, 생존율이 100만분의 1이라면 목숨을 건진 사람은 딱 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이미가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이 사실이라면, 9999명의 다른 생존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제이미의 머릿속에는 1만 명의 생존자의 행방보다 더 궁금한 사람이 떠올랐다. 지난 13년을 함께한 남자, 스스로 떠나왔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도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이미와 다니엘은 지구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갔지만, 뜻하지 않은 비극이 찾아왔다. 제이미의 뱃속에서 자라던 소중한 생명이 유산되고 만 것이다. 제이미가 원치 않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생긴 아기였지만, 막상 아기를 잃고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없었던 제이미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멀리, 되도록 멀리 도망가고만 싶었다. 다니엘과도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았다. 솔리테어 행성에서 의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그녀는 아픈 기억도 좋은 추억도 모두 지구에 남겨두고 홀로 솔리테어로 왔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온 우주를 휩쓸어버린 지금, 제이미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생존율이 정말 사실인지, 그저 이론적인 확률일 뿐이고 인류가 멸망해버

린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인다.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자, 제이미는 사태를 확인하러 나선다. 무엇보다 지구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알아야만 했다.

### 100만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생존자들, 지구로 향하는 이들의 비밀과 사연

일단 행성들을 오가는 우주비행선들이 정박하는 항구로 나간 제이미는 그곳에서 자신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른 생존자 두 명을 발견한다. 모두 지구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제이미는 이 두 사람 모두 지구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셋은 우주선 선장인 칼란 제이콥스를 찾아 지구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만, 그는 아글레아까지만 태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아닌 이상, 파멸의 바이러스가 휩쓸어버린 지구에 제 발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시간이 흐르자 항구에는 또 다른 생존자들도 하나 둘 나타난다. 기적처럼 살아 남았다는 공통점에 유대감을 느끼면서도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불안감이 뒤섞이면서 제이미를 비롯한 생존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고조된다. 가슴속에 각자 남모를 계획을 품은 사람들, 이들은 솔리테어를 떠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이미는 다니엘과 함께 했던 시절, 일말의 의심 없이 ‘집’이라 불렀던 곳으로 돌아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잡고 싶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려면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과 우주여행에 나서야 한다.

외계인이나 좀비 같은 존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첨단 기술의 이점을 찬양하지도 않지만, 우주선이 드넓은 우주 공간을 유유히 누비고 인류가 여러 행성에 거주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매력적인 소설이다. 바이러스로 멸망의 문턱에 들어선 인류의 미래, 제각기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가려는 생존자들, 그 속에서 다시 사랑과 행복을 찾으려 애를 쓰는 제이미의 고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돌이켜보게 한다.

### <저자 소개>

앤 콜렛(Anne Corlett)은 배스스파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변호사이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단편소설로 ‘H E Bates Award’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목 : ACTS OF LOVE

가제 : 사랑의 행동

저자 : Talulah Riley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6년 8월 1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 영화 <오만과 편견>에 출연한 배우 타룰라 라일리의 데뷔 소설, 편견 가득한 여자의 사랑 찾기

겉모습만 보면 버나뎃은 영락없는 ‘여자’다. 얼굴 생김새 하나하나가 균형이 완벽하고, 생기발랄한 연한 갈색 눈과 가느다란 턱 선, 적당히 드러난 광대뼈에서도 여성미가 물씬 느껴진다. 남자치고 그녀의 매력적인 분위기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버나뎃의 마음속은 남자에 대한 불신, 남자라는 족속은 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확고한 편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버나뎃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순하고 착해 보이는 눈 뒤에 서린 적개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더 없이 상냥하고 이해심 깊은 여자일 거라고 억측만 할 뿐이었다. 버나뎃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키 크고 잘생긴 외모가 아까울 만큼 지독한 여성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아버지가 엄마를 쉴새 없이 구박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에 대한 실망감과 증오심이 서서히 형성되고 단단해진 것이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남성상을 찾으려고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인 로맨스 소설을 탐독했지만 버나뎃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은 현대 사회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던 어느 날, 마침내 버나뎃 앞에 그 모든 편견을 부순 남자가 나타났다. 함께 일하는 동료, 팀이었다. 버나뎃은 외모는 물론 지적인 수준이며 마음씨까지 못 남성들과 전혀 다른 팀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깊은 사랑에 빠졌다. 팀이 드디어 만난 평생의 사랑이고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확신은 그 첫 만남 이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원하기만 하면 어떤 남자는 마음대로 취락퍼락할 줄 아는 타고난 솜씨로 기자로서 큰 명성을 쌓은 버나뎃이지만, 자신의 사랑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팀은 버나뎃을 장난스레 ‘밀고자’라고 불렀다. 그 별명처럼, 버나뎃이 유명한 정치가며 연예인, 사업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면, 누구든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업 기밀이며 은밀한 뒷거래, 아무도 모르는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버나뎃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특종이 될 만한 정보를 모두 알아낸 다음 자비심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문장으로 그들의 실체를 기사화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정보를 내놓게 하기 위해 버나뎃 자신이 어떻게 유도했는지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오히려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왔는지도 비웃듯이 공표했다. 사람들은 그 이면에 깔린 깊은 남성혐오는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담하면서도 참신한 그녀만의 인터뷰 방식에 열광했다.

### 어떤 남자는 속을 털어놓게 만드는 여자, 그 특별한 능력에 휘둘리지 않는 두 명의 남자

영국에서 유능한 저널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지자, 할리우드에서 버나뎃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때 처음 만난 에이전트가 바로 팀이었고, 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버나뎃은 훨씬 좋은 조건들을 모두 거절하고 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때문에 싹튼, 이제는 스스로 잘라버릴 수도 없는 남자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누그러뜨려줄 단 한 사람이 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애만 태우는 버나뎃과 달리 팀은 그녀를 좋은 동료로, 친한 친구로만 대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다. 팀의 피양세 엘리자베스는 버나뎃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사람이었다. 이런 난관에도 팀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하던 버나뎃에게 놀라운 상대가 나타났다. 팀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엘리자베스의 소개로 만난 래들리라는 남자였다. 그는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부터 버나뎃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깊은 인상을 남기더니, 몇 마디 나눠보기도 전에 금세 만만치 않은 남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위트 넘치고, 똑똑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그는 어딘가 버나뎃의 속내를 꿰뚫는 것 같았다. 버나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당혹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를 인터뷰하기로 결심한다. 예상대로, 래들리는 버나뎃의 인터뷰 기술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순탄하게 이어온 버나뎃의 성공가도를 정면으로 가로막을 줄 아는,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것이다.

여자는 일단 예뻐야 할까, 덜 예뻐더라도 똑똑한 편이 나을까? 섹시한 여자와 친절함 여자, 강인한 여자와 기댈 곳을 찾는 약한 여자, 양립하기 힘든 이 같은 요소들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까지 생길 만큼 여성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뜻하지 않은 만남으로 편견이 가득한 자신의 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버나뎃의 이야기에 이 오랜 고민이 녹아 있다.

영화 <오만과 편견>에도 출연했던 영화배우 타룰라 라일리가 작가로 첫 발을 디딘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타룰라 라일리(Talulah Riley)는 연기 재능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영화배우로, <세인트 트리니안스>, <인셉션>, <오만과 편견> 등에 출연했다.

제목 : THE HOUSE OF SHATTERED WINGS

가제 : 부서진 날개의 집

저자 : Aliette De Bodard

출판사: Roc

발행일: 2015년 8월 18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 천상의 세력 다툼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파리, 그 속에서 또 다시 움트는 음모

한 때 ‘빛의 도시’라 불리던 파리의 아름다움을 모두 앗아간 참혹한 전쟁, 1914년에 시작된 대전쟁은 그 아름다운 도시 곳곳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 천상에서 추락한 천사들과 마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대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파리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새카맣게 타버린 조개껍데기 같은 몰골이 되었고, 센 강에는 둥둥 떠다니는 시커먼 재와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망가진 도시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다투면서 질긴 목숨을 이어갔다. 권력자들은 뚝뚝 뭉쳐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과거 파리의 극심한 파워 게임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을 만큼 승승장구하던 실버스파이어 당은 그 화려한 권력의 밑바탕이던 강력한 마법의 힘을 잃어버리고 당을 처음 만들고 키운 최고의 실세, 모닝스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20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먼지와 돌무더기가 가득한 거리, 옛 정취를 모두 잃은 파리에 살아남은 존재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되찾아 도시도, 자신들의 세력도 되살아날 날만 기다렸다.

모닝스타의 제자였던 셀렌느는 그가 사라진 후 실버스파이어의 대표가 되어 연금술사인 마들렌과 함께 미미하게 남은 권력이라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셀렌느가 모닝스타와 같은 리더가 될 방법과 그의 행적을 쫓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 마들렌은 전쟁 후에 생긴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혼자 고투를 벌였다. 하늘에서 추락한 천사들의 잔해, 그 중에서도 앤젤 에센스에 중독된 마들렌은 과거 스승이던 아스모데우스의 손아귀에 다시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살아갔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겨운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났다. 얼마 전 지상으로 추락한 천사 이사벨과,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불명의 청년이었다. 이사벨은 셀렌느, 마들렌과 금세 친해지지만 필립은 처음부터 어딘가 수상했다. 베트남인인 그는 평범한 인간과 다른 불멸의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추락한 천사는 아니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징병되어 고향을 떠났고, 하늘에서 갓 떨어진 천사의 피를 몰래 채취하다가 적발되어 실버스파이어로 보내진 필립과 이사벨 사이에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었고, 셀렌느는 곧 그 사실을 눈치챈다. 왜 필립은 천사의 피를 가지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들이 등장한 직후 놀라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파리에 거점을 둔 다른 세력의 고위관리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인간도, 천사도 예외 없이 이상한 죽음을 맞이했다.

## 추락한 천사, 특별한 기술을 가진 연금술사, 오랜 저주를 풀 수 있는 남자, 그림자 세력과의 전쟁

필립이 등장한 후 원인 모를 죽음이 잇따른 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 셸린느는 어둠의 그림자가 실버스파이어에 내린 저주가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임을 직감한다. 그런데 세력 다툼을 벌이던 적들이 실버스파이어의 강력한 마법을 묶어버리기 위해 가한 저주, 오랜 세월 누구도 풀지 못한 그 저주의 매듭을 필립이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편처럼 위장한 채 내부에 스며들어 실버스파이어를 몰래 지켜보는 그림자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순진한 천사 이사벨, 파괴적인 중독에 시달리는 연금술사 마들렌, 그리고 낮은 주문을 휘두를 줄 아는 정체 모를 청년 필립, 이들이 실버스파이어를 구해낼 마지막 밭줄이라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실버스파이어가 일어서지 못하면 도시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전쟁이 남긴 고통에 울부짖으면서도 새로운 것과 정신을 매혹하는 대상에 눈이 먼 생존자들과 파리의 주도권을 단독으로 거머쥐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늘어만 가는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우는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의 갈등은 점점 고조된다. 실버스파이어를 처음 만든 모닝스타가 다름아닌 루시퍼라는 사실, 하늘에서 추락하는 천사들이 지상에 부딪히면서 터져 나온 살점과 뼈를 비싼 값에 암거래하려고 기다리는 자들, 동양과 서양이 각자 확고하게 믿는 신화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들과 같은 독특한 소재가 이야기의 흥미를 더한다.

### <저자 소개>

알리에트 디 보다드(Aliette de Bodard)는 프랑스인과 베트남인 부모님의 피를 절반씩 물려 받은 혼혈로, 파리에서 컴퓨터와 역사에 심취해 살면서 간간히 글을 쓰고 있다. 비서구권 문화에 특히 관심이 많은 작가로,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 NON-FICTION

제목 : ORIGINAL GANGSTAS

가제 : 오리지널 갱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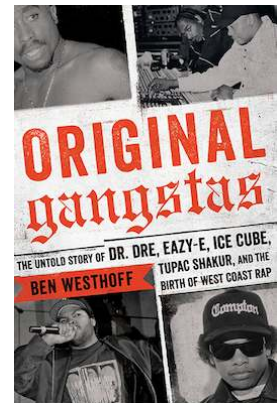
저자 : Ben Westhoff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역사/대중문화



### 닥터 드레, 이지 이, 아이스큐브, 투팍 샤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갱스터랩의 탄생 배경

‘이지 이(Eazy-E)’라는 이름으로 갱스터랩의 대부라는 극찬을 받기 전, 아직 에릭이라 불리던 스물한 살의 청년은 로스앤젤리스 캄튼에서 마약을 팔았다. 아버지는 우체국 직원이고 어머니는 몬테소리 학교 교사였음에도 에릭은 그리 반듯한 아이로 자라지 못했다. 1985년은 코카인에 에테르를 섞은 일명 프리베이스 코카인이 로스앤젤리스 일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라 에릭의 사업도 호황을 누렸다. 다른 지역에서도 약을 구하러 몰려들 정도였다. 에릭은 정신이 멀쩡해야 사업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 만큼 영리해서 마약을 팔면서도 자신은 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쓰는 문제가 있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자와 사귀는 건 기본이라 에릭과 만난 여자들이 낳은 아이만 10명이나 될 정도였다. 랩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로 등장하여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그 시절, 에릭의 머릿속에도 힙합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창 잘 나가던 마약 판매를 계속 이어가면서 혼자 조용히 구상한 그 계획은 콤프턴 출신 힙합그룹 N.W.A가 탄생하는 씨앗이 되었다. 아라비안 프린스, 디제이 엘라, 닥터 드레, 아이스 큐브, 엠씨 렌과 함께 198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N.W.A는 ‘행동하는 흑인들’이라는 팀 이름에 걸맞게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는 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랩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음악 전문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역사적인 힙합 그룹 N.W.A가 등장하면서 판세가 뒤집힌 힙합의 세계와 성공 이후에 찾아온 변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멤버들의 이야기, 그리고 갱스터랩이라는 특별한 장르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이 책에서 짚어본다.

마약상이던 이지 이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자퇴자, 전과자 출신이 모여서 만든 N.W.A는 인종차별 철폐와 지금도 흑인인권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경찰의 과잉진압 실태를

거친 랩에 담아냈다. 사람들은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창의적인 발상에 열광했고, 갱스터랩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힙합의 중심지를 뉴욕에서 로스앤젤리스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아이스큐브, 스눕독, 투팍 샤커와 같은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전 세계 대중문화 전체에 돌풍을 일으킨 이들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들도 놀랄 만큼 엄청난 성공이 찾아오자, 그룹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탈퇴하는 멤버들이 생기고, 이들이 새로 들어간 음반회사와 남은 멤버들이 속한 회사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미국 동부해안과 서부해안 래퍼들 전체가 맞붙는 전쟁으로 번지고 말았다. 두 세력이 서로를 혈투고 욕하는 와중에 갱스터랩의 인기도 날로 치솟았지만, 결국 투팍 샤커와 비기 스몰스가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저자는 총 5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지 이가 설립한 ‘로슬리스 레코드’와 N.W.A를 탈퇴한 멤버들이 들어간 슈크 나이트의 ‘데스로 레코드’ 사이에 벌어진 총돌과 FBI, 정치인, 경찰과의 갈등, 일부 멤버가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이 격렬한 랩 전쟁을 추적하면서 힙합이 미국의 주류 문화가 된 과정과 배경을 찾아본다. 아이스큐브, 닥터 드레, 엠씨 렌, 스눕독, 아이스티 등 래퍼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1980년대 후반 LA를 혼돈으로 몰고 간 마약과 경찰의 잔인한 대응방식, 폭력의 얼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목차>

1. 콧수염 기른 놈
2. 로미오 경
3. 카드 가져갈게
4. O.G(오리지널 갱스터)
5. 너 따위 신경 쓰지 않아
6. 금 약간, 그리고 무선호출기
7. 망할 브레이크를 전부 다 잃어버리다
8. 알라 신과 친구처럼 지내다
9. 평범한 인권 운동가는 아냐
10. 복권 당첨과 같은 일들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벤 웨스트호프(Ben Westhoff)는 「L.A. Weekly」에서 음악 분야 에디터로 일했다. 「롤링스톤」, 「피치포크(Pitchfork)」, 「바이스(Vice)」, 「월 스트리트 저널」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가디언」에는 랩에 관한 글을 정기적으로 실고 있다. 2011년 발표한 저서 『Dirty South』는 「Library Journal」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제목 : THE PURPOSE EFFECT

가제 : 목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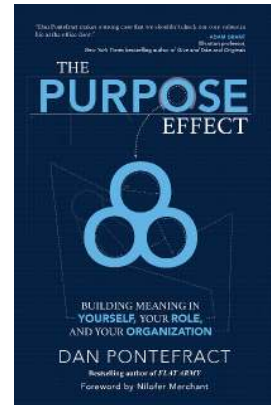
저자 : Dan Pontefract

출판사: Elevate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영



## 개인, 개인이 속한 조직, 조직에서 부여된 역할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

사람마다 제각기 살아가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만을 바라며 살 수는 없다. 먹을 것을 사고, 집세를 내고, 가끔 영화도 보고 옷을 구입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크게 어긋나면, 삶의 균형을 잃은 기분이 든다. 특히 회사가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일이나 개개인에게 부여한 역할이 개인의 인생 목표와 크게 상충되면 그 격차는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기대와 어긋나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게 된다.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와 행동, 조직 문화를 수년 간 조사하고 연구해온 저자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 그리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안정 지점’이라고 칭한 이 지점을 찾아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 수 있다. 즉 개인, 조직, 역할의 목표가 모두 달성되면 각기 따로 놓던 이 목표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 영향은 직원, 팀, 조직 전체, 소비자에게 전해지며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장이 미친다. 반대로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가 무시되거나 달성 가능성에서 현저히 멀어진다면 구성원들의 참여 거부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 저하와 도산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저자는 회사를 이끄는 리더와 회사를 구성하는 직원들 모두가 이 세 가지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개인의 목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각자가 내놓는 답이며, 여기에는 개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과 삶의 경험, 믿음이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답은 살면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 조직의 목표도 이와 비슷해서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조직의 원칙, 윤리, 문화가 모두 포함되며 이 같은 요소들이 조직의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역할의 목표는 조직에서 그 역할이 존재하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설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바로 역할이다. 이 세 가지 목표가 한데 겹쳐지는 ‘안정 지점’은 곧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자와 조직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조직의 소유자와 주주들, 그리고 사회의 이해관계가 결집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직원이 각자 개인의 삶의 목표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듯이 조직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목표에도 같은 무게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리더가 조직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적시에 제대로 설정하고, 직원이 조직에서 부여한 일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목표가 달성된다고 느낀다면 업무의 생산성과 개인, 조직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저자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중심에 두면 직원, 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면서 모두가 안정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 <목차>

##### 머리말

##### 1부.

1장. 목표를 세우기 위한 목표

2장. 도덕적 목표

##### 2부.

3장. 의도하지 않은 일들

4장. 목표가 어긋나면

##### 3부.

5장. 개인의 목표 감각

6장. 조직의 목표 설정

7장. 역할이 바탕이 되는 목표 설정

##### 4부.

8장. 사회의 범주에서 - 목표가 있는 사회

9장. 안정 지점으로 가는 길

#### <저자 소개>

댄 폰트프랙트(Dan Pontefract)는 조직문화와 리더십 개선을 돕는 컨설팅 업체 'TELUS Transformation Office'의 대표로 TED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강연을 해 왔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허핑턴 포스트」 등에 업무 방식 변화에 관한 글도 기고해 왔다.

제목 : EVERYTHING IS HAPPENING

가제 : 예술로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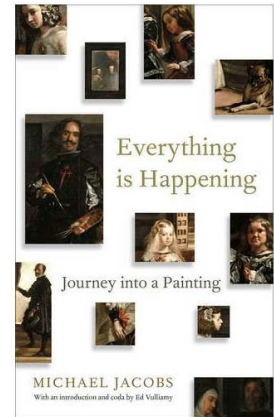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Jacobs

출판사: Granta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탐구한 미술사이자, 회고록 여행에세이

저자 마이클 제이콥스는 10대 시절, 우연히 스페인의 프라도 박물관에서 만난 그림 <시녀들(Las Meninas)>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고, 숨은 뜻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은 그림인 만큼 그는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EVERYTHING IS HAPPENING』은 한 소년의 첫 스페인 여행기이자 마드리드의 황금기의 복잡미묘한 정치사를 아우르는 역사서로, 그림 하나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스페인 내전 당시 이 그림을 구한 사람을 직접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연결 고리로써의 '하녀들'을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해 가던 중 2014년 세상을 떠났고, 이 책은 그의 친구이자 열렬한 예술 애호가인 저널리스트 에드 볼리아미(Ed Vulliamy)와 다른 에디터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에세이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는 옷차림으로 보아 왕실 사람들 같은 인물들이 방안에 모여 있다. 서로 친밀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방안에 내려 앉은 무거운 분위기와 고요한 침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벨라스케스가 스페인 필리프 4세 시절 궁전의 방안 풍경을 그렸다고 밝힌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얼어붙은 듯 경직된 인물들이다. 자세나 눈빛도 그렁고, 하던 행동마저 멈춘 것처럼 보인다. 프레임에 나오지 않은 어떤 대상에 정신이 완전히 쏠린 기색들이 역력하다. 실제로 뒷벽에 걸린 금직한 거울에는 누군가의 흐릿한 형체가 보이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림 속 인물들의 눈을 사로잡은 그 형체가 필리프 4세나 여왕일 것으로 추측한다. 벨라스케스를 최고의 예술가로 보았던 저자는 <시녀들>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술사와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개개인의 시각에 관한 견해를 모두 종합한 책을 쓰고자 했다. 2013년 신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여 만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저자가 열정적으로 매달린 이 책은 벨라스케스라는 위대한 화가와 그의 작품에 관한 종합적인 역사서이면서도 개개인이 미술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히 주장한 글이기도 하다. 저자에 이어 이 책을 완성한 에드 볼리아미는 예술사 전반에 관한 알찬 정보가 집약되어 있으면서도 주류 예술사에서 주목 받지 못한 값진 자료들을 부각시킨 독특하고도 균형 잡힌 글이라고 평가한다.

벨라스케스의 전 생애, 파헤칠수록 층층이 신비로운 암호가 숨겨진 <시녀들>의 상징들, 이 작

품을 바라보는 다른 예술가들과 역사가, 철학자, 시인, 일반 대중들의 관점과 해석, 똑같은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그림에 매료된 저자 개인의 삶과 변화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 <목차>

시녀들

에드 불리아미의 서론, 머리말

모든 일이 벌어지다 - 마이클 제이콥스

- 의미
- 배경에 대하여
- 한 걸음 더 들어가보자
- 궁전의 문을 통해

마무리: 그림의 바깥에서 - 에드 불리아미

#### <저자 소개>

마이클 제이콥스(Michael Jacobs)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코톨트 미술연구소에서 예술사를 공부했다. 이후 런던과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Andes』, 『The Robber of Memories』 등의 저서를 썼다.

제목: TRUFFLE BOY

가제: 트러플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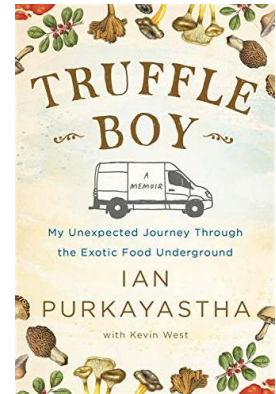
저자: Ian Purkayastha & Kevin West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6년 8월 23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회고록



### 이국적인 식재료들, 구하기 힘든 진귀한 식품의 세계에 뛰어든 한 소년의 좌충우돌 성장기

살다 보면 우연한 기회에 평생 추구하고 소망하는 일을 만나는 경우도 생긴다. 아칸소 주에서 제멋대로 살던 남자아이에게는 열다섯 살에 버섯 따는 법을 배우고 태어나 처음으로 송로버섯을 맛본 날이 바로 그 결정적인 날이 되었다. 그 주인공인 저자는 뉴욕으로 건너와 젊은 패기와 자신감으로 송로버섯처럼 ‘특선 식품’으로 분류되는 최고급 요리 재료들을 사고파는 일에 뛰어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 송로버섯을 공급하는 수입업자로 자리를 잡았다. 이 책은 저자가 뉴욕 최고의 요리사들, 몇 개월씩 대기 손님이 줄을 잇는 레스토랑들과 거래하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대가로 배운 것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이국적인 식재료들, 은밀하고 지저분한 식품 무역의 일면이 생생하게 담긴 회고록이다.

저자가 송로버섯을 알게 된 건 4월의 어느 날, 아칸소 북서부의 아조크 산에 있는 외조부의 통나무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었다. 삼촌은 집 뒤편에서 곰보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었고, 이어 송로버섯에 대해 알려주었다. 프랑스에서 “주방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송로버섯은 생산량이 적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마산 치즈와 마늘, 절인 고기, 허브 냄새에 흙 냄새까지 섞인, 독특한 향을 지닌 신비로운 버섯이다. 그 특별한 향과 맛에 완전히 매료된 저자는 3년간 용돈을 긁어 모아 프랑스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송로버섯 1킬로그램을 주문했고, 오클마호와 텍사스 일대 음식점에서 일하던 요리사들에게 팔았다. 침대에 이미 송로버섯 수입업자로 발을 디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열일곱 살이 된 저자는 뉴욕의 뉴워크 화물터미널에서 이탈리아산 송로버섯 상자를 받아 든다.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뉴욕에서 처음으로 수입한 버섯이었다. 맛에 가장 민감한 전세계 미식가들이 몰려드는 뉴욕은 채워지지 않는 미각을 달래려는 소비자들과 가장 특별한 재료와 솜씨로 이들을 매혹시키려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처음 수입한 송로버섯을 시작으로, 현재 스물두 살이 된 저자는 한 해 수백 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특선 식품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요리사들에게 공급하는 전문 업체를 운영 중이다. 세계 곳곳에서 뉴워크 화물터미널로 들어온 온갖 진귀한 식재료들은 수입량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1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그 값어치는 보물과 맞먹는다. 이러한 재료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지고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까지 포함하여 불과 몇 시간 이내에 요리로 완성되어 세계최고라 평가 받는 뉴욕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만난다.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채취한 재료들, 지역의 특색이나 계절, 재배 방식을 엄격히 관리하여 소량만 만들어낸 ‘A급’ 식재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따라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과 함께, 원하는 재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든 개의치 않는 최고급 요리의 세계를 처음 접하고 기겁했던 저자의 사업 초창기 좌충우돌 경험담부터 송로버섯에 마음이 꽂혀 젊은 사업가로 성장한 모든 과정이 진솔하게 담긴 책이다. 서문은 저자와 거래하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 중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데이비드 장이 작성했다.

#### <목차>

서문 - 데이비드 장

1장. 뉴욕과 사랑에 빠지다

2장. 더블 인디언

3장. 십대 사업가

4장. 우울한 삶

5장. 제인

6장. 리갈리스(Regalis)

7장. VIP 트러플

8장. 블랙 다이아몬드

9장. 구찌 버섯

#### <저자 소개>

이안 퍼카야스타(Ian Purkayastha)는 식품 수입업체 ‘리갈리스 푸드(Regalis Foods)’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북미 대륙 전역에서 300명이 넘는 요리사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케빈 웨스트(Kevin West)는 음식과 여행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로 저서로는 『Saving the Season』, 『Travel + Leisure』, 『Condé Nast Traveler』 등이 있다.

제목 : HEY, WHIPPLE, SQUEEZE THIS

가제 : 미스터 휘플의 비밀

저자 : Luke Sullivan, Edward Boches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 유치 찬란한 흑백 광고에 담긴 성공적인 광고 전략의 비결, 뇌리에 남는 광고를 만드는 비밀

소비자의 눈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 위한 광고 전쟁은 치열하고 뜨겁다. 모두가 광고의 주된 무기는 창의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보는 사람의 뇌리에 딱 박혀버리는 광고를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 광고 카피라이터로 33년 동안 일해온 저자는 1970년대에 미국 전역의 시청자들을 괴롭힌 프로텍터 앤 갬블 사의 두루마리 휴지 광고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이 책은 뜨거운 열정을 품고 광고 업계에 발을 들인 젊은이들에게 화려한 디지털 기술과 빛나는 아이디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광고의 기본 원칙을 날카롭게 짚어주는 정보서지만, 고리타분한 설교 대신 전통적인 TV 광고의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전략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펼쳐놓는다.

지금도 미국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두루마리 화장지 ‘차민(Charmin)’은 1970년대에 ‘미스터 휘플’이라는 슈퍼마켓 사장이 등장하는 광고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광고 내용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유치하다. 어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러 나온 두 여성이 차민 휴지를 손에 들고 있다. 한 명이 두 손바닥 사이에 차민 휴지를 들고 꺾꺾 누르며 “엠보싱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만 눌러보게 된다”고 토로하면, 옆에서 다른 여성은 휴지 한 칸을 떼어내 볼에 대며 “감촉도 너무 보드랍다”고 감탄한다. 그 때,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코 끝에 안경을 걸친 미스터 휘플이 등장한다. 슈퍼마켓 사장인 그는 집게 손가락으로 이 두 여성을 가리키며 호되게 꾸중한다. “그렇게 차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을 마친 직후, 미스터 휘플 역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차민을 들고 양 손바닥으로 꺾꺾 누르며 좋아한다. 저자는 그 당시 시도 때도 없이 TV 화면에 등장하던 미스터 휘플을 총으로 쏘서라도 당장 없애버리고 싶어 미칠 노릇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광고 전문가들도 미스터 휘플이 70년대 TV 광고에 등장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인물이며 차민 광고는 두 번 다시 보기 싫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평가와 전혀 다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광고로 차민 휴지가 무려 수십 억 개가 넘게 팔려 나간 것이다. 1975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미스터 휘플이 닌스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사에서는 이 광고에 맞서려고 ‘휘플 죽이기’ 전담 팀까지 꾸렸지만 그 어떤 광고로도 휴지를 꺾꺾 눌러대는 미스터 휘플의 저력을 이겨낼 수 없었다. 저자는

차민 휴지를 만든 프로텍터 앤 갬블 사가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총 504편의 광고를 제작하면서 ‘시청자가 짜증이 날 만큼 반복되는 광고를 만든다’는 전략을 고수했고,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먹혀 들었다고 설명한다.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제품이나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광고의 기본적인 목표라면 짧은 광고 시간 동안 단순히 소비자의 눈길만 끄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는 차민 휴지처럼 전통적인 광고가 택했던 성공적인 광고 전략을 바탕으로, 진실성과 단순성, 스토리텔링, 그리고 갈등 요소가 성공적인 광고 제작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광고, 광고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음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참신한 전략을 배울 수 있다.

#### <목차>

머리말. 두 번째로 똑똑한 직원이 되어라

1장. 사람들이 광고를 끔찍이도 싫어하게 된 이유 - 그럼에도 광고업계에서 일해야 하는 까닭

2장. 창의적인 과정 - 혹은, 부모님께 직업이 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까닭

3장. 사격 준비! 목표 - 혹은, 말하는 방식보다 말하는 내용이 우선인 까닭

4장. 멍청한 짓은 그만 - 아이디어 얻기, 큰 획을 긋는 법

5장. 글로 써라 - 아이디어의 완성, 섬세한 표현의 필요성

6장. 단순함은 진리 - 혹은, 옆면에 못을 박기가 힘든 까닭

7장. 멍청이, 롱(Rong), 말썽쟁이,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 관심을 얻고 입에 오르내리는 광고

8장. 왜 나쁜 사람이 더 흥미로운가? - 스토리텔링, 갈등, 그리고 플랫폼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루크 설리반(Luke Sullivan)은 Fallon, The Martin Agency, GSD&M 등 유수의 광고회사에서 30년 넘게 광고 일을 하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AT&T, 밀러 라이트 등의 광고를 만들었다. 사반나 예술 디자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에드워드 보치스(Edward Boches)는 광고 컨설턴트로 ‘Creativity Unbound’라는 블로그를 통해 광고업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30년 동안 광고인으로 살다가 2012년부터 보스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네럴 모터스, 구글 등의 광고를 맡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제목 : ARCHITECTURE'S ODD COUPLE

가제 : 건축계의 묘한 커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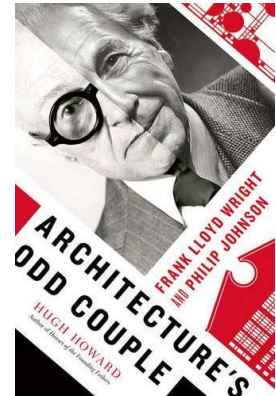
저자 : Hugh Howard

출판사: Bloomsbury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2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전기



### 확연히 다른 건축 스타일과 견해로 불꽃 튀게 대립했던 두 건축가의 업적과 서로를 향한 영향력

건축계에서는 20세기 건축사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필립 존슨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두 사람이 남긴 업적과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로맨틱하고 평온한 시골이나 초원 지대를 떠올리게 하는 자연친화적인 스타일,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실험 정신이 가득한 스타일이라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건축 양식처럼 건축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도 판이하게 달랐지만, 창의성과 카리스마,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40여 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뜨겁게 피어날 수밖에 없었다. 역사가로 잘 알려진 저자는 이 두 라이벌이 펼친 신경전은 건축에 대한 예술적인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유익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서로 비난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두 건축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1955년, 예일 대학교에서 건축계의 저명인사들을 초대한 행사에 여든여덟의 노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몇 년 전 ‘글래스 하우스’로 큰 명성을 얻은 마흔아홉의 건축가 필립 존슨도 함께 했다. 프랭크가 이미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지고 언론 보도나 그의 건축 스타일을 분석한 책들로 대중적인 인기까지 모은 거장이라면, 필립은 하버드에서 건축을 공부한 엘리트로 1949년에 지은 ‘글래스 하우스’를 계기로 건축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천재 건축가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필립은 1932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당시 프랭크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필립의 글래스 하우스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자, 거장은 그 독특한 건축물을 직접 찾아와 건축사에 길이 남을 말들을 남겼다. 글래스 하우스는 직사각형의 단층 건물로 외벽이 전부 두꺼운 판유리로 둘러쳐져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였다. 딱히 방이라고 부를 만한 구획도 없고, 거실과 부엌, 책상이 놓인 자리까지 한 눈에 들여다보이는 독특한 구조였다. 한 가운데에 벽돌로 큰 굴뚝처럼 동그란 원통 모양으로 벽을 쌓은 욕실, 거실 우측에 담처럼 놓인 벽, 그 뒤에 놓인 침실 공간도 개성이 넘쳤다. 푸르른 수풀에 둘러싸이긴 했지만, 침실을 비롯해 집 전체가 커튼 한 장 없이 외부와 그대로 접한, 말 그대로 ‘투명한 집’이었다. 한 신문이 ‘백화점 안에 사는 기분이 들 것 같다’고 평가한 이 집을 처음 방문한 프랭크는 철재와 유리만으로 이루어진 글래스 하우스를 ‘가슴이 절벽인 여자’ 같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

리고 집주인인 필립이 외출한 사이에 예고도 없이 두 번째로 찾았을 때는 현관에서 가사도우미에게 명언을 남겼다. “지금 내가 집 안에 있는 거요, 집 밖에 있는 거요?”

저자는 이 같은 일화를 비롯해 프랭크와 필립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현대 건축계에서 ‘묘한 커플’로 불리는 두 사람의 업적을 정리하고 미국 전체의 풍경이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디자인, 그러면서도 분명히 겹치는 요소들, 적대적이면서도 계속해서 서로를 신경 쓰는 관계에서 일궈낸 놀라운 성과들이 지루할 틈도 없이 빠르게 전개된다.

#### <목차>

머리말. 거장과 마에스트로

1부. 마음이 통한 걸까?

1장. 두 번의 대화

2장. 복귀 전략

3장. 유럽 여행

2부. 뉴욕 현대미술관 시절

4장. 새로운 박물관

5장. 초대장

6장. 라이트 vs. 존슨

7장.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3부. 적개심의 표출

8장. 베어런 계곡

9장. 정치와 예술

10장. 라이트의 맨해튼 프로젝트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휴 하워드(Hugh Howard)는 『Mr. and Mrs. Madison's War』, 『The Painter's Chair: George Washington』과 『Making of American Art: Dr. Kimball and Mr. Jefferson』 등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다룬 저서를 여러 편 썼다.